

2018년 4/4분기

# 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18. 9.

## I. 경기전망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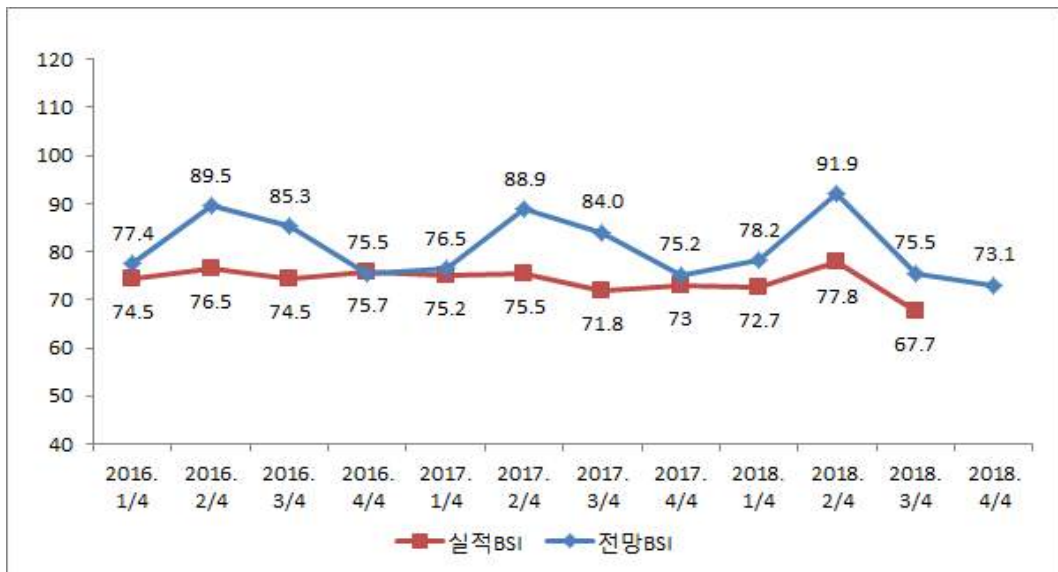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18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 2018년 4/4분기 기업경기 전망실사지수(BSI)는 전분기 대비 2.4포인트 하락한 73.1로 조사되어 지역기업의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이는, 내수침체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및 인건비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전 업종에 걸쳐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, 특히, 현대,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 불황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지역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대내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.

또한, 대외적으로도 미-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부진 우려와 함께 금리 인상 가속화, 국제 유가 상승세 등의 리스크가 수출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.

한편, 3/4분기 BSI 실적치는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67.7로 집계되어 지역기업이 심각한 실적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구분 BSI	2015년				2016년				2017년				2018년			
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
전망 BSI	88	89	79	78	77	90	85	76	77	89	84	75	78	92	76	<b>73</b>
실적 BIS	74	77	71	71	75	77	75	76	75	76	72	73	73	78	<b>68</b>	

◆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4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77.8, 섬유 57.9, 화학·플라스틱 77.8, 기타 업종이 72.7로 나타나, 업종 전반에 걸쳐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주요 부문별 4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내수가 78.0, 수출은 71.6, 영업이익은 내수가 68.9, 수출이 66.7, 자금 조달여건이 68.5로 나타나,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하였다.

### <주요 업종별 · 부문별 B.S.I>

항 목	분 기	2018년	2018년
		3/4분기 실적	4/4분기 전망
업 종 별	전 제조업	<b>67.7</b>	<b>73.4</b>
	기계·금속	68.9	77.8
	섬유	68.4	57.9
	화학·플라스틱	66.7	77.8
	기타	63.6	72.7
부 문 별	체감경기	67.7	73.1
	매출액(내수)	64.5	78.0
	매출액(수출)	73.5	71.6
	영업이익(내수)	64.5	68.9
	영업이익(수출)	69.7	66.7
	자금조달여건	70.0	68.5

## 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① 귀사의 올해 영업이익(실적)이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

	백분율
목표치 미달	76.2%
목표치 달성(근접)	23.8%
초과 달성	0.0%
합 계	100%

☞ ‘목표치 미달’에 76.2%, ‘목표치 달성(근접)’에 23.8% 응답했다.

② (①에서 ‘목표치 미달’에 답한 경우)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美·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	11.7%
고용환경 변화	23.4%
환율 변동성	5.2%
금리인상 기조	7.8%
기업관련 정부규제	9.1%
내수시장 둔화	32.4%
유가 상승	9.1%
기타	1.3%
합 계	100%

☞ ‘내수시장 둔화’가 32.4%, ‘고용환경 변화’가 23.4%, ‘美·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’가 11.7%, ‘기업관련 정부규제’ 및 ‘유가 상승’이 각각 9.1%, ‘금리인상 기조’가 7.8%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.

③ 우리나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	백분율
중장기적 우하향세	79.0%
일시적 경기부진	14.0%
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	7.0%
합 계	100%

☞ 중장기적 우하향세(79.0%), 일시적 경기부진(14.0%),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(7.0%)의 순으로 응답했다.

④ (③에서 ‘중장기적 우하향세’에 답한 경우)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주력산업 침체 장기화	35.6%
폐쇄적 규제환경	11.9%
경제 양극화(대기업 수익성 > 중소기업)	20.3%
중소기업 경쟁력 약화	27.1%
서비스산업 부진	1.7%
저출산·고령화	3.4%
기타	0.0%
<b>합 계</b>	<b>100%</b>

☞ ‘주력산업 침체 장기화’ 35.6%, ‘중소기업 경쟁력 약화’ 27.1%, ‘경제 양극화 (대기업 수익성 > 중소기업)’ 20.3%, ‘폐쇄적 규제환경’ 11.9%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.

수 美·中통상분쟁이 귀사의 영업과 매출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	백분율
예	52.6%
아니오	47.4%
<b>합 계</b>	<b>100%</b>

☞ ‘예’가 52.6%, ‘아니오’가 47.4%로 조사되었다.

⑥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R&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	40.9%
FTA·CPTPP 등 무역협정 체결	6.8%
수출시장 다변화	47.7%
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	2.3%
기타	2.3%
<b>합 계</b>	<b>100%</b>

☞ ‘수출시장 다변화’ 47.7%, ‘R&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’ 40.9%, ‘FTA·CPTPP 등 무역협정 체결’ 6.8%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⑦ 남북관계 및 대북제재가 개선·해소된다면, 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?

	백분율
참여	33.3%
불참	66.7%
합 계	100%

☞ 66.7%가 ‘불참’으로 답하였으며, 33.3%는 ‘참여’로 응답했다.

⑧ (⑦에서 ‘참여’에 답한 경우)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	36.8%
경의선 연결 등 운송비용 절감	0.0%
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	42.1%
북한시장에 알맞은 품목 생산	15.8%
기타	5.3%
합 계	100%

☞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개발(42.1%), 인건비 절감과 낮은 언어장벽(36.8%), 북한 시장에 알맞은 품목 생산(15.8%), 기타(5.3%)의 순으로 응답했다.